

# ‘스토브리그’ 조한선 “손에 물집 잡힐 때까지 야구 연습”

### 국내 리그 손꼽히는 홈런 타자 ‘임동규’ 역 호평 “더 필사적 매달리고 연기해야 보시는 분들 설득”

SBS ‘스토브리그’(극본 이진화/연출 정동윤)가 지난 14일 오후 방송을 마지막으로 종영을 맞았다. 팬들의 눈물까지 마른 끝짜팁 드립즈에 새로 부임한 백승수(남궁민 분) 단장이 다시 팀을 재정비해 가는 모습을 그린 ‘스토브리그’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프로 야구팀 프런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스토브리그’는 출연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제각각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지배적이었다. 드립즈의 중추인 백승수를 비롯해 운영팀장 이세영(박은빈 분), 백승수의 앞을 가로막는 권경민(오정세 분), 운영팀의 막내였지만 스카우트팀의 막내가 된 한재희(조병규 분), 드립즈의 카리스마 강두기(하도권 분) 등 매력 가득한 캐릭터들에 시청자들은 많은 호평을 보냈다.

배우 조한선이 연기한 임동규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내 리그 인에서는 손에 꼽히는 홈런 타자이자 드립즈의 대표 타자였던 임동규는 백승수와 극 초반부터 강력한 대립을 펼치며 ‘스토브리그’의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극 후반부에서는 그가 야구를 향한 진심을 드러내거나 백승수와 다시 힘을 합쳐 드립즈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훈훈함을 더하기도 했다.

**-이런 ‘스토브리그’에 출연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나.**

▶정말 많이 답답했다. 운동선수 역할도 드라마에서는 처음이었고, 드라마에서 이렇게 비중있게 캐릭터 있는 역할도 나오는데 너무 광장히 오렌만이었다. 또 이렇게 끝까지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캐릭터도 오렌만이었다. 촬영할 때도 마음이 남달랐다. 쉽지 않은 준비도 있었다. 하지만 촬영하면서 잘 되겠다 ‘못 되겠다’의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인팩트를 줄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

**-야구 연습을 많이 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씩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동안 꾸준히 했다. 촬영 중에도 2회까지 나오고 공백이 있었는데 다음 출연 장면이 야구를 해야하는 장면이라 계속 연습했다. 저는 제 손에 멍든 걸 처음 봤다. 손에 물집 잡히는 것도 처음이었다. 또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 야구라는 자체를 제가 한 번 밖에 배트를 치는 것밖에 해보지 않아서 이번엔 연습할 때 몸이 아팠다. 나이가 있다 보니깐 더 그런 것 같다.(웃음)

**-작품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 것 같은데.**

▶만족 안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되게 어리둥절하고 얼떨떨하다. 이렇게 주목을 받아본 게 오렌만이기도 하다. 드라마를 끝내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하게 될지도 상상 못했다. 인생 캐릭터라는 기사도 많이 나와서 얼떨떨하지만 기분이 되게 좋다. 한편으로는 다음 작품 어떻게 하지라는 부담도 있다.

**-시청률 상승을 보면서 느낀 점은 없었나.**

▶저는 깜짝 놀랐다. 초반 2회까지는 잘 안 나왔던 게 사실이다. 내가 안 나오니까 잘 나오거나 생각도 했는데 사실 첫방도 그렇게 나올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 정도도 많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다. 2회에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거다. 쭉쭉 오르는 데 저는 원래 칼을 갖고 있었다. 2회까지만 나오고 초반에 욕먹은 것만 생각하면서 칼을 갖고 있었다.

**-초반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남궁민과의**

호흡은 어땠나.

▶남궁민형과 호흡이 되게 좋았다. 저도 공민이형을 믿고 갔던 부분이 있다. 공민이형이 대본을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 근데 저는 2회까지 나오고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후반부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친해질 기회가 없었다. 또 너무 친해지면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질 것 같았다. 그리고 정말 공민이형의 연기에 임하는 태도 등에서 많이 배웠다.

**-남궁민과의 컷속말 장면도 유명한데 실제 촬영 때는 무슨 말을 나눴나.**

▶일단 대본에는 ‘컷속말을 한다’고만 적혀있었고 무슨 내용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으시더라. 말을 한 건 나중이 돼서 다시 찍은 거다.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던지는 느낌이었다. 공민이형은 나한테 특별히 해라는 식으로 컷속말을 했고 저도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느낌으로 말을 했던 기억이다.

**-‘스토브리그’는 스포츠계의 적폐를 꼬집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대본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일어났었던 일이다. 작가님 감독님 입장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치부를 드러내는 걸 감추고만 있는다고 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한다. 저희 같은 드라마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스포츠계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실제 축구선수 출신이니 감정이 남다른 게 다가오지 않았나.**

▶사실 저도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 저런일 운동하면서 많이 겪었다. 제가 대학교 때까지는 축구를 해서 프로는 가지 못했지만 임동규의 그 꿈을 알고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동규라는 인물을 대



입했을 때 이거는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냥 흘러가는 캐릭터가 아니라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다보니깐 대사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오고 몸이 되더라. 특히 내가 야구에 얼마나 미친 놈인데를 말할 때 울컥했던 게 너무나 많았다. 촬영하면서 너무나 몸이 잘 돼있었고 연기하면서도 정말 답답했다. 왜 이거를 몰라주지라는 심정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지훈한테서 백승수와 이야기할 때 ‘야구장 앞에서 쥐포 파는 아줌마’와 같은 대사를 하는데 그게 막 와닿더라.

**-연기를 하는 마음가짐이 바뀐 점이 있나.**

▶연기하는데 남궁민형이 그러더라. ‘한선아 너 작품 많이 못했는데 연기하면서 느낀건데 너무 좋다. 너무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공민이형한테 얘기했다. ‘저는 다 내려놔. 모든 걸 내려놔’고 말이다. 근데 내려놔라는 게 연기생활을 오래해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정확히 결혼하면서 내려놔. 가정이 되다보니깐 맡은 역할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가정을 꾸릴 수 없겠더라. 그때부터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혼자 장면을 만들어서 감독님한테 드리고 그랬다.

그게 맞는 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아직 결혼을 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결혼 한다고 기사까지 났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한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조카들인 줄 안다. 그걸 와이프가 옆에서 되게 싫어한다. 결혼한 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

▶어떻게 임동규를 벗어나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바람보다는 저와의 싸움인 것 같다. 제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사적으로 매달려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끝이다.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연기해야 보시는 분들도 연기로 설득할 수 있는 내공을 더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 또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 있었는데 3월부터 단편 영화를 하나 찍게 됐다. 되게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라 영화의 규모에 신경 쓰지 않고 출연하게 됐다.

## ‘젝스키스’, 4명 첫 단체 예능...티격태격 ‘찐우정’



‘전지적 참견 시점’ 제스키스의 24년 장수 비결은 티격태격 ‘찐우정’이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연출 박창훈, 김진영/이하 ‘전참시’)에 출격한 1세대 원조 아이돌 제스키스는 4인 컴백 이후 처음으로 단체 관찰 예능에 출연했다.

먼저 평균 나이 42세에 돌입한 제스키스의 눈물겨운 컴백 비하인드가 관심을 모았다. 마음만은 아이돌이지만, 예전 같지 않은 건강과 체력을 가진 제스키스의 안무 연습이 눈길을 끈 것. 제스키스는 연습 두 번 만에 지쳐 쓰러지는 리얼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에 매니저는 “제스키

스 형들이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다. 나이 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마음 아프다”고 전했고, 이를 들던 은지원이 “너는 나이 안들 것 같나”고 발끈해 스튜디오를 초토화 시켰다.

이와 함께 장수돌 제스키스의 24년 ‘찐우정’ 표현법이 웃음을 더했다. 제스키스는 만나자마자 서로의 의상을 지적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유치찬란한 말싸움을 하는 등 투닥거렸다. 이와 관련 매니저가 “제스키스 형들이 두 명 이상 모이면 유치한 이유로 한 시간 이상 안장한다. 처음에는 불화설을 걱정할 정도로 실별한 대화에 전전긍긍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형들만의 인사법인 것을 알아서 편안하게 받아들인다”고 증언해 웃음을 더했다.

특히 은 지원은 그런 멤버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유치 매력을 발산해 시청자를 빵 터지게 만들었다. 은 지원은 관찰 영상에서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건강에 해롭다”며 바로 안무 연습을 할 수 없다고 고집부린 것은 물론, 스튜디오에서도 “안무에 사용한 스탠딩 마이크 무게가 45kg이 넘는다”고 우기며 참견인들을 헛갈리게 만드는 등 ‘은초딩’ 면모를 보였다.

뉴스



## ‘이태원 클라쓰’ 박서준, 야망남 매력 안방 사로잡아

박서준이 거침없는 야망남의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박서준은 JTBC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박새로이 역을 맡아 ‘장가’를 누르기 위한 야심을 불태우며 긴장감을 극대화, 흥미진진한 전개를 이끌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6회에서는 박새로이가 그리는 ‘빅픽처’가 공개됐다. ‘단밤’ 멤버들과의 회식에서 ‘단밤’의 프랜차이즈화라는 목표를 밝히며 야망을 드러낸 것. 자신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와 확신에 찬 박새로이의 모습은 ‘단밤’ 멤버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며 그를 응원하게 했다. 또한, 장가와 자신의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오수아(권나라 분)에게는 “장가, 내가 끝내줄게! 맘 편하게 배수만 들어 줄게”라며 달콤한 선전포고를 날려보는 이마저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박새로이가 숨겨진 조력자 이호진(이다윗 분)과 함께 ‘장가’를 향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흥미를 자아냈다. 박새로이는 이호진을 통해 ‘장가’의 주식을 사들여왔고, 이를 알게 된 장대희(유재명 분) 회장을 ‘단밤’에 찾아오게 만들었다. 고도소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마주 선 두 사람은 팽팽하게 대치하며 브라운관을 뒤흔고 나올 듯한 압도적인 포스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서준은 캐릭터가 지닌 내적 변화의 디테일을 살리는 감정 표현으로 흡입력을 높였다. 눈빛부터 사소한 제스처 하나에도 감정을 실어 표현하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낸 것. 특히 본격적으로 ‘장가’를 향한 복수의 시작을 알린 후 장대희와 대치하는 장면에서는 날카로운 눈빛과 묵직한 인사말만으로도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며 엔딩을 장식했다. 매회 업그레이드 되는 연기력으로 안방극장을 장악하는 박서준의 활약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속속 절로 높아지고 있다.

## 안재현, SNS “날 잊어주세요” 글 게재...팬들 우려 ↑

배우 안재현의 SNS 글에 팬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16일 새벽 안재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날 잊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안재현의 “날 잊어주세요”란 글에 팬들은 위로와 응원의 댓글을 여럿 다는

등, 걱정과 우려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현재 안재현은 아내인 배우 구혜선과 이혼 소송 중이다. 안재현과 구혜선이 불화를 겪고 있다는 소식은 지난해 8월 구혜선이 SNS 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입장을 밝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혼



한밤과 인터뷰에서 안재현과 갈등 속에서 느낀 심경을 고백하는 등, 이혼 이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소송에 돌입했다. 이달 6일 구혜선 측은 SBS ‘본격연예